

중국과의 협력교류 합의문 작성

대한산업보건협회 부회장
윤 입 중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중국 瀋陽市에 있는 瀋陽市第九人民病院 및 勞動衛生職業病研究所(同一機關)가 인력, 기술 그리고 학문적 협력관계를 갖자고 논의된 것은 작년 9월이었다. 지난해 9월 대한산업의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위의 연구소 李忠소장, 尹龍燦교수(조선족) 그리고 심양시 위생사업관리국 曹鳳强회장을 초청하여 中國産業保健의 歷史와 實態, 中國의 職業病診斷에 있어 精度管理 그리고 中國産業保健의 制度에 대한 특별강연을 부탁한 바 있다. 학회가 끝나고 그들이 귀국하는 전날밤 중국측으로부터 협력에 대한 간절한 제의를 받았다. 그들의 제의를 조규상명예회장님(당시, 회장), 그리고 최병수전무님에게 전달하였던 바 두분 모두 협력관계를 갖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그후 合意文(案)을 한글과 영문으로 작

성한 것이 이사회에서 검토되고 검토된 내용을 중국에 알렸는데 합의문 내용에 동의한다는 회신을 받았다. 합의문에 대한 서명은 심양에서 하기로 양측이 의견을 모았다. 합의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대한산업보건협회와 심양시노동위생직업병연구소(제9인민병원은 개원하지 않았음)의 상호능력을 보완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

- 직업병의 진단, 치료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한 교육에 협력한다.
- 연구와 교육에 있어 인력을 교환한다.
- 학문과 기술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 두 기관의 공동연구과제를 개발한다.
-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에 협력한다.

그리고 위 합의문 내용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 예를 들면 교환되는 인력의 수와 기간, 비용부담에 관한 것, 교환인력의 질병과 사고 등에 관한 책임 한계를 명시하였다.

다음 기회에도 심양시 제9인민병원과 노동위생직업병연구소에 대하여 소개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두기관의 중요한 연혁과 현상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959년 직업병과를 포함한 종합병원이 창립되었으나 3년후인 1962년 요령성공업위생연구소와 병원이 병합되면서 병원은 문을 닫고 지금의 노동위생직업병연구소로만 활약하였다. 지금의 시장경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만해도 정부에서 전적으로 재정지원을 해주었기 때문에 연구소운영에 어려움이 없었으나 시장경제도입후 정부의 지원이 거의 중단되어 연구소의 존속이 매우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현재의 李忠院長 겸 研究所長은 다시 종합병원설립의 용단을 내렸다. 연구소 주변의 5,400평의 대지를 마련하고 건평 약 6,000평(13층)의 병원을 건축하고 심양시 제9인민병원이라 이름하였다. 병실은 500병상 규모이지만 '96년 7월 현재 300병상을 가동중인데 입원환자 약 230명 외래환자 1일 평균 500여명이다.

심양시에는 150만 근로자가 있는데 제9인민병원과 연구소는 이들 근로자를 위한 노동위생, 직업병의 진단, 치료와 예방, 그리고 산업보건에 대한 연구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국산업보건에 관한 학술잡지중 가장 권위 있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공업의학잡지를 발행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중국정부에서는 유해물질에 대한 허용기준과 25개 유해물질에 의한 직업병의 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북경의과대학 직업병연구소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병원은 최근에 신축되어 깨끗한 편이었으나 연구소는 59년 건물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매우 낡은 편이었다. 시장경제 도입후 특히 연구소 운영이 매우 어려워졌으나 종합병원의 개설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병원과 연구소측의 말대로 한국과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산업보건에 대한 학문적 자료는 충분히 얻을 수 있으므로 한국이 원한다면 최선을 다하여 협력할 것이라 하였다.

이번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양국의 협력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이루어져 두 나라의 산업보건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